

# 六十甲子와 陰陽五行에 관한 考察\*

尹暢烈\*\*

## I. 序 論

十干에도 陰陽과 五行의 구별이 있고 十二支에도 陰陽과 五行의 구별이 있듯이 干支가 서로 결합한 六十甲子에도 陰陽과 五行의 구별이 있다. 특히 五行의 배합은 納音法의 원리로써 이루어지는데 納音이란 宮(土) 商(金) 角(木) 徵(火) 羽(水)의 五音을 六十甲子에 배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納音之法이 어느때 누구에 의해서 창시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그리고 五行之上에 〇〇水, 〇〇火, 〇〇木, 〇〇金, 〇〇土라고 한 것 역시 어느때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曆法通書》와 淵海子平 등의 術書에는 納音은 戰國時代 鬼谷子 王詡의 所作이고 象(〇〇水, 〇〇火 등을 지적하는 것 같다.)은 前漢 武帝때의 曼倩子 東方朔의 所作이라<sup>1)</sup> 하나 믿기가 어렵다. 또 納音之法을 본래 무슨 용도를 위해서 만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李氏希濂은 “疑末世術家猥瑣之所爲也(아마 後世 術家の 庸俗한 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 하였다<sup>2)</sup>. 曆家들의 術語가운데 八專日 十方暮 天一 天上 등의 용어는 모두 納音에 근거를 두고 나온 말들이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納音은 曆家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松下見林은 “納音者는 取支干相遇而五行變化가 終六句之義라 …… 凡五行五藏之妙와 萬物無窮之變이 備於 納音라니 本非爲推命而說也라 其說이 雖出陰陽家나 而其創始則不興焉이오 其主義도 亦別在矣로

대 乃陰陽家假之하여 推人始生年之干支하여 而配之以所屬之音은 法同六甲之納音이라”<sup>3)</sup>고 하였다. 納音에는 깊은 理致와 原理가 있어 初學者는 알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內容을 살펴 보고자 한다.

## II. 十二律의 原理

劉溫舒는 十二律呂에 旋相爲宮, 同類娶妻, 隔八生子, 下生上生 등의 原理가 있고, 納音法에도 一辰之中에 合五音하여 十二辰이 共納六十音하는 原理와 同類娶妻, 隔八生子, 下生上生 등의 原理가 있어 十二律의 原理가 곧 納音法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十二律과 納音에 同類娶妻의 原理와 隔八生子の 原理가 모두 들어있지만 內容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納音法이 十二律의 原理를 借用하고 있지만 兩者가 서로 같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먼저 十二律의 原理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十二律中에서 黃鍾, 太簇, 姑洗, 蕤賓, 夷則, 無射을 六律이라고 하고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을 六呂라고 한다. 十二律呂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黃鍾 十一月復卦 史記律書에 曰黃鍾者는 陽氣鍾黃泉而出也라 〇前漢書律歷志上에 曰黃者는 中之色이며 君之服也오 鍾者는 種也니 陽氣施種於黃泉하여 孳萌萬物이라 〇白虎通五行章에 曰黃者는 中和之色이오 鍾者는 動也니 言陽氣動於黃泉之下하여 養萬物也라

太簇 正月泰卦 律書에 曰泰簇者는 言萬物簇生也라 〇律歷志에 曰太簇의 簇는 奏也니 言陽氣大

\* 이 論文은 1996년도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의 研究支援費에 의해 作成되었습니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史敎室

1) 沈載烈, 增補淵海子平精海, 서울, 明文堂, 1984, pp.31-32.

2) 胡廣 等, 性理大全, 중국, 山東友誼書社出版, 1989, 3冊, p.1874.

3) 松下見林, 運氣論奧疏抄卷三, p.3.

奏地而達物也라 ○白虎通에 曰泰者는 大也오 簇者는 湊也니 言萬物始大湊地而出也라

姑洗 三月大卦 律歷志에 曰洗는 潔也니 言陽氣洗物辜潔之也라 ○白虎通에 曰姑者는 故也오 洗者는 鮮也니 言萬物이 皆去故就新에 莫眞不鮮明也라

蕤賓 五月小卦 律書에 曰蕤賓者는 言陰氣幼少라 故로 曰蕤오 痿陽이 不用事라 故로 曰賓이라 ○律歷志에 曰蕤는 繼也오 賓은 導也니 言陽始導陰氣라라 使繼養物也라 ○白虎通에 曰蕤者는 下也오 賓者는 敬也니 言陽氣上極하야 陰氣始賓敬之也라

夷則 七月否卦 律書에 曰夷則은 言陰氣之賊萬物也라 ○律歷志에 曰則은 法也니 言陽氣正法度而使陰氣로 夷當傷之物也라 ○白虎通에 曰夷는 傷也오 則은 法也니 言萬物始傷하야 被刑法也라 ○歐陽永叔秋聲賦에 曰夷는 戮也니 物過盛而當殺이라

無射 九月剝卦 律書에 曰無射者는 陰氣盛用事하야 陽氣無餘也라 ○律歷志에 曰亡射의 射은 厭也니 言陽氣究物而使陰氣로 畢剝落之하야 終而復始니 亡厭已也라 ○白虎通에 曰射는 終也니 言萬物이 隨陽而終이나 當復隨陰而起하야 無有終已라

大呂 十二月臨卦 律歷志에 曰呂는 旅也니 言陰大旅가 助黃鐘宣氣而牙物也라 ○白虎通에 曰呂者는 拒也니 言陽氣欲出이나 陰不許也라 ○月令大全에 長樂陳氏曰是爲陰律之始니 則陰之所以配陽而行者가 於是爲大故로 曰太呂라

夾鐘 二月大卦 律書에 曰夾鐘者는 言陰陽이 相夾廁也라 ○律歷志에 曰言陰이 夾助太簇하야 宣四方之氣하야 而出種物也라 ○白虎通에 曰夾者는 孚甲也니 言萬物孚甲의 種類分也라 ○長樂陳氏曰夾鐘을 亦謂之園種者는 以春主規로 言之也라

仲呂 四月乾卦 律書에 曰仲呂者는 言萬物이 盡旅而西行이라 ○律歷志에 曰中呂는 言微陰이 始起未成하고 著於其中하야 旅助姑洗하야 宣氣齊物也라 ○長樂陳氏曰中呂를 亦謂之小呂者는 對大呂爲小故也라

林鐘 六月賁卦 律歷志에 曰林은 君也니 言陰氣受任하야 助蕤賓하야 君主種物하야 使長大林盛也

라 ○白虎通에 曰林者는 衆也니 言萬物이 成熟하야 種類多也라 ○長樂陳氏曰林鐘을 亦謂之函鐘者는 以坤含洪으로 言之也라

南呂 八月觀卦 律書에 曰南呂者는 言陽氣之旅가 入藏也라 ○律歷志에 曰南은 任也니 言陰氣가 旅助夷則하야 任成萬物也라 ○長樂陳氏曰酉는 正西也라 氣至南而化하고 行於西而成하니 西는 所以成南而行爾라 故로 曰南呂라 又曰亦謂之南事者는 以成南爲事故也라 ○趙氏惠曰南은 任也니 謂時物이 皆秀하야 有懷妊之象이라 八月初物皆含秀하야 懷吐之象이니 陰任陽功하야 助陽成功也라

應鐘 十月坤卦 律書에 曰應鐘者는 陽氣之應不用事也라 ○律歷志에 曰言陰氣가 應亡射하야 該藏萬物而雜陽閏種也라 ○白虎通에 曰應者는 應也니 言萬物이 應陽而動下藏也라 ○趙氏惠曰應은 和也니 謂歲功이 皆應和하야 陽功收而聚之也라”4)

禮記의 禮運篇에 “五聲六律十二管이 還相爲宮也”라 하였고, 陳氏(陳澧)集說의 注에서

“五聲은 宮商角徵羽也라 六律은 陽聲은 黃鐘子 太簇寅 姑洗辰 蕤賓午 夷則申 無射戌也오 陰聲은 謂之六呂이니 太呂丑 應鐘亥 南呂酉 林鐘未 仲呂巳 夾鐘卯也라 六律六呂는 皆是候氣管名이니 律은 法也니 又云述也오 呂는 助也니 言助陽宣氣也라 總而言之면 皆可稱律이라 故月令에 十二月을 皆稱律也하니 長短之數 各有損益이오 又有娶妻生子之例하니 長短損益者는 如黃鐘이 長이 九寸이니 下生者 三分去一故로 下生林鐘의 長六寸也오 上生者 三分益一하니 如林鐘長六寸이 上生太簇長八寸也라 上下之生이 五下六上이니 蓋自林鐘未로 至應鐘亥면 皆在子午以東이라 故謂之下生이오 自大呂丑으로 至蕤賓午면 皆在子午以西라 故謂之上生이니 子午는 皆屬上生하니 當云七上而云六上者는 以黃鐘이 爲諸律之首故로 不數也라 律이 娶妻而呂生子者 如黃鐘九 以林鐘六으로 爲妻하고 太簇九 以南呂六으로 爲妻하야 隔八而生子則 林鐘이 生太簇하고 夷則이 生夾鐘之類也니 各依此推之면 可見還生爲宮者라 宮은 爲君主之義하니 十二管이 更迭爲主

4) 松下見林, 運氣論與辨證, 卷之中, pp.6-8.

自黃鐘始하니 當其爲宮에 五聲이 皆備라 黃鐘第一宮이 下生林鐘爲徵하고 上生太簇爲商하고 下生南呂하야 爲羽하고 上生姑洗하야 爲角하니 餘는 倣此라 林鐘은 第二宮이오 太簇는 三이오 南呂는 四요 姑洗은 五요 應鐘은 六이오 蕤賓은 七이오 大呂는 八이오 夷則은 九요 夾鐘은 十이요 無射은 十一이오 仲呂는 十二也니 此非十二月之次序라 乃律呂相生之次序也라”<sup>5)</sup>라고 하였다.

위의 內容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還相爲宮은 一律이 生五音하는 것으로 黃鐘이 宮이 되고 太簇가 商이 되고 姑洗이 角이 되고 林鐘이 徵가 되고 南呂가 羽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黃鐘이 子에 屬할 때 五자가 있으니 甲子徵, 丙子羽, 戊子宮, 庚子角, 壬子商으로 이것이 黃鐘五聲이다. 太呂도 또 다섯이 있으니 乙丑, 丁丑, 己丑, 辛丑, 癸丑의 五音이 또한 이와 같으며 나머지 寅에서 亥까지도 모두 同一하다. 朱子가 이르기를 “律凡十二에 各以本律爲宮而生四律하니 如黃鐘爲宮則 太簇爲商 姑洗爲角 林鐘爲徵 南呂爲羽는 是黃鐘一宮之聲也오 若林鐘爲宮則 南呂爲商 應鐘爲角 太簇爲徵 姑洗爲羽는 是林鐘一宮之聲也”<sup>6)</sup>라 하였다.

둘째, 夫妻와 母子의 관계가 있다.

張介賓은 黃鐘은 乾卦의 初九로 下生林鐘하니 坤의 初六이 되며 林鐘은 上生太簇하니 乾의 九二가 되고 太簇는 下生南呂하니 坤의 六二가 된다.(一般的으로 陽律이 生陰하는 것을 下生이라 하고 陰律이 生陽하는 것을 上生이라고 한다.)

南呂는 上生姑洗하니 乾의 九三이 되고 姑洗은 下生應鐘하니 坤의 六三이 된다.

應鐘은 上生蕤賓하니 乾의 九四가 되고 蕤賓은 下生大呂하니 坤의 六四가 된다.

大呂는 上生夷則하니 乾의 九五가 되고 夷則은 下生夾鐘하니 坤의 六五가 된다.

夾鐘은 上生無射하니 乾의 商丘가 되고 無

射은 下生仲呂하니 坤의 上六이 된다.

初九가 初六을 生하는 것은 一陽一陰으로 同位가 되니 同位는 夫妻의 모습이 된다. 그리고 初六이 九二를 生하는 것은 一陰二陽으로 異位가 되니 異位는 母子의 모습이 된다. 따라서 律은 娶妻하고 呂는 生子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7)</sup>.

앞에서 말한 同類娶妻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 三分損益法이 있다. 三分損益法은 五音을 바로 잡는 方法으로 音은 비록 다섯이지만 變化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대나무를 잘라 12개의 대나무관을 만들어 十二月에 應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12개의 관을 만드는 원리가 三分損益法이다. 그 원리는 앞의 陳氏集說에서도 說明되었는데 여기서는 律數로서 다시 한번 說明해보고자 한다.

黃鐘은 宮音이 되고 宮은 音之君이며 一陽之律이다. 陽이 子에서 生하고 數가 九에서 始作하니 九倍를 하면  $9 \times 9 = 81$ 이 되어 黃鐘之數가 된다. 이 81에서 3분의 1인 27을 버리면 54의 徵音을 얻고 54에서 3분의 1인 18을 더하면 72의 商音이 된다. 72에서 3분의 1인 24를 버리면 48의 羽音을 얻고 48에서 3분의 1인 16을 더하면 64의 角音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音律의 三分損益之數이다.

古人들이 律을 計算하는 方法이 3種類가 있는데

첫번째는 黃鐘을 9寸으로 하고 매촌을 9分으로하여 모두 81分으로 계산하는 것이다.(淮南子, 晉書, 宋書)

둘째는 黃鐘을 10寸으로 하고 매촌을 10分으로하여 모두 100分으로 계산하는 것이다.(史記 律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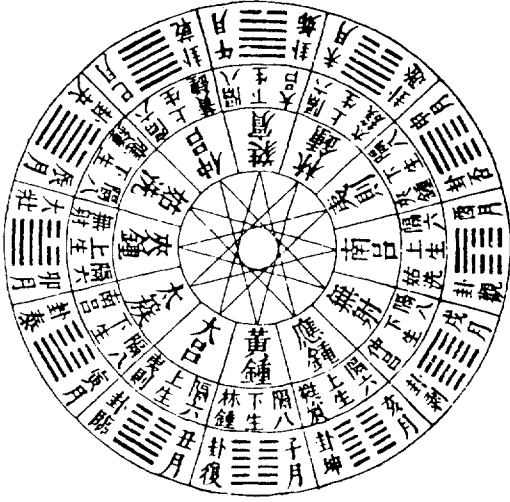
셋째는 黃鐘을 9寸으로 하고 매촌을 10分으로하여 모두 90分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5) 禮記, 大田, 學民文化社, 亨, pp.380-382.

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416.

7) 上同, p.416.

(京房律准, 後漢書)



[그림 1] 律呂相生卦氣圖

此圖長律下生短律 短律上生長律 下生者皆左旋隔八 上生者皆右旋隔六

첫번째 方法으로 計算한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8).

- 黃鐘之數 八十一(宮音數) 蕤賓之數 五十七
- 林鐘之數 五十四(徵音數) 大呂之數 七十六
- 太簇之數 七十二(商音數) 夷則之數 五十一
- 南呂之數 四十八(羽音數) 夾鐘之數 六十八
- 姑洗之數 六十四(角音數) 無射之數 四十五
- 應鐘之數 四十三 仲呂之數 六十

נית, 隔八隔六의 相生原理가 있다.

隔八이란 여덟단계를 隔하고 隔六이란 여섯단계를 隔한다는 뜻으로 左旋隔八하고 右轉隔六하는 것을 말한다. 黃鐘이 林鐘을 생할 때 黃鐘은 11월에 배속되고 林鐘은 6월에 配屬되니 11월에서 6월까지의 間隔을 세어보면 8이나온다. 그러나 黃鐘의 11월에서 부터 거꾸로 6월의 林鐘까지를 세어보면 6이 나오게 된다. 또 林鐘이 太簇를 생하니 林鐘의 6월에서 太簇의 1월까지 左旋하여 세어보

면 8이 나오고 거꾸로 右轉하여 林鐘의 6월에서 太簇의 1월까지 세어보면 6이 나온다. 이하의 계산은 同一한데 이를 隔八, 隔六의 原理라 하며 앞에서 말한 隔八生子의 內容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9).

律呂相生卦氣圖를 참고하면 위의 內容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 Ⅲ. 納音五行

甲子	海中	丙寅	爐中	戊辰	大木	庚午	路傍	壬申	劍鋒
乙丑	金	丁卯	火	己巳	大木	辛未	土	癸酉	金
甲戌	山頭	丙子	澗下	戊寅	城頭	庚辰	白鐵	壬午	楊柳
乙亥	火	丁丑	水	己卯	土	辛巳	金	癸未	木
甲申	泉中	丙戌	屋上	戊子	霹靂	庚寅	松栢	壬辰	長流
乙酉	水	丁亥	土	己丑	火	辛卯	木	癸巳	水
甲午	沙中	丙申	山下	戊戌	平地	庚子	壁上	壬寅	金箔
乙未	金	丁酉	火	己亥	木	辛丑	土	癸卯	金
甲辰	覆燈	丙午	天河	戊申	大驛	庚戌	釵釧	壬子	桑柘
乙巳	火	丁未	水	己酉	土	辛亥	金	癸丑	木
甲寅	大溪	丙辰	沙中	戊午	天上	庚申	石榴	壬戌	大海
乙卯	水	丁巳	土	己未	火	辛酉	木	癸亥	水

納音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五行之數 干支之數 그리고 大衍之數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五行之數는 水一六, 火二七, 木三八, 金四九, 土五十이다. 그리고 干支之數는 甲己子午九, 乙庚丑未八, 丙辛寅申七, 丁壬卯酉六, 戊癸辰戌五, 己亥之數四이다. 일반적으로 이 數를 先天數라고 부르고 있다.

大衍之數는 五十이지만 太極의 一數를 빼고난 四十九가 실제로 用事하는 數이다.

다음으로 成音之理를 알아야 하는데 五行 가운데 오직 金과 木은 自然之音이 있고, 水 火 土는 반드시 상대방의 相擊을 받고 나서 소리를 이루니 이른바 相擊이라는 것은 火는 소리가 없지만 水를 빌려서 소리가 나고, 水는 소리가 없지만 土를 빌려서 소리가 나고, 土는 소리가 없지만 火를 빌려서 소리를 내는 理致이다. 이러한 原理에 의해 보면 金音

8) 上同, pp.413-415.

9) 上同, p.412.

은 四九가 되고 木音은三八이 되고, 火音은 一六이 되고, 水音은 五〇이 되고, 土音은 二七이 된다.

그리고 納音을 구하는 방법도 또 2가지가 있다.

먼저 《曆法通書》에 나와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甲子 乙丑을 金이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들의 先天數의 合은 甲九 子九 乙八 丑八이 되어 모두 34가 된다 이를 大衍之數 49에서 빼면 15가 남는다. 이 15를 五行之數인 5로 다섯씩 빼나갈 때 10을 빼고 나면 5가 남는다. 5는 土數이고 土生金하므로 甲子 乙丑에다가 金音을 歸納하는 것이다.

丙寅 丁卯를 火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의 先天數의 合은 丙七 寅七 丁六 卯六이 되니 모두 26이 된다. 이를 大衍之數 49에서 빼면 23이 남는다. 이 23을 5씩 빼어 가면 3이 끝으로 남고 3은 木의 數이고 木生火하므로 丙寅 丁卯에는 火音을 歸納하는 것이다. 나머지의 계산법도 모두 以上과 同一하다. 즉 《曆法通書》의 方法은 一圈中 干支의 綜合數를 구하고 이를 大衍之數에서 뺀다음 5의 倍數로 다시 빼서 남는 五行의 生數의 相生之五行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王達<sup>10)</sup>의 《蠡海集》<sup>11)</sup>과 《三車一覽》에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甲子 乙丑을 金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의 先天數의 合이 모두 34가 되고 5의 배수로 빼고 남는 수는 4가 된다. 그런데 4의 金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소리를 내므로 甲子 乙丑에다가 金音을 歸納한다.

丙寅 丁卯를 火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의 先天數의 合이 모두 26이 되고 이를 5의 배수로 빼고 나면 1이 남게 된다. 그런데 1은

水數로 水가 擊出하는 소리는 火이므로 丙寅 丁卯에다가 火音을 歸納하는 것이다. 나머지도 이렇게 類推해 나가면 된다<sup>12)</sup>.

다음으로는 納音속에 들어 있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一辰이 合五音하는 律呂의 旋相爲宮法이 있다. 一辰之中에 五音을 合하면 十二辰이 모두 六十音을 歸納한다. 예를 들어 子之一辰에 甲子金, 丙子水, 戊子火, 庚子土, 壬子木은 바로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同類娶妻의 原理가 있다.

甲子는 陽干과 陽支가 上下相臨하여 이루어져 上下가 모두 陽으로서 陽이 亢盛되어 있으므로 乙丑을 娶하여 妻로 삼아야만 調和를 이룰 수가 있다. 왜냐하면 乙丑은 干과 支가 모두 陰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30圈도 모두 이와 같이 前者爲陽爲夫 後者爲陰爲妻로 나눌 수 있다.

셋째, 隔八生子의 原理가 있다.

納音의 隔八生子는 甲子, 乙丑이 金이고, 壬申, 癸酉가 金인데 甲子로 부터 癸酉에 이르는 過程에서 八位를 隔하여 金을 生한다는 것이다. 즉 甲子の 앞 乙丑으로부터 아래로 八位를 세어 나가면 壬申의 金을 生한다. 이는 甲子和 癸酉의 二位를 除外하고 中間의 八位만 計算한 것이다.

또 壬申의 앞 癸酉부터 세어 八位를 隔하면 다시 庚辰의 金을 生한다. 이 역시 壬申 辛巳의 二位를 除外하고 中間의 八位만을 計算한 것이다.

넷째, 上生과 下生의 이치가 있다. 劉溫舒는 “陽生於子는 所以下生이요 陰生於午는 所以上生”<sup>13)</sup>이라고 하였다. 60甲子를 크게 들

10) 王達: 明 錢塘人. 한쪽다리를 절었으며 아주 가난하여 약을 판았으나 自給이 안되어 또 남의 집을 쳐주며 살았다. 百家의 학문을 두루 연구하였고, 손님이 이르면 古今의 일을 남문하기를 좋아하였다. 저서로 《蠡海集》이 있다.

11) 《蠡海集》: 명 왕규 지음. 과거에 宋人이 지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권이며 天文, 地理, 人身, 庶物, 歷數, 氣候, 鬼神, 事義의 八類로 나누어져 있다. 蠡海는 표주박(蠡)으로 바닷물을 담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견해가 좁다는 의미의 謙語이다.

12) 岡本爲竹, 運氣論奧諺解, 卷之一, pp.18-19.

로 나누면 甲子에서 癸巳까지 上30位와 甲午에서 癸亥까지의 下30位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上30位는 陽에 속하고 下30位는 陰에 속한다. 下生이 甲子에서 시작하고 上生이 甲午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子는 陽이오 午는 陰이니 子를 下生이라 한 것은 陽中에서 陰이 降하기 때문이요 午를 下生이라고 한 것은 陰中에서 陽이 升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三元之理가 있다.

三元은 三統이라고도 하는데 공간적으로는 天地人이며 시간적으로는 有始 有中 有終이 있는 것이다. 三統에 대해 漢書律曆志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三通者 天施 地化 人事之紀也라 十一月은 乾之初九로 陽氣伏於地下라 始著爲一하야 萬物萌動하고 鍾於太陰이라 故로 黃鐘爲天統이며 律長九寸이니 九者는 所以究極中和하야 爲萬物元也니 易曰 立天之道는 曰陰與陽이라하니라

六月은 坤之初六으로 陰氣受任於太陽하야 繼養化柔하야 萬物生長하고 棼之於未하야 令種剛彊大라 故로 林鐘爲地統이며 律長六寸이니 六者는 所以含陽之施하야 棼之於六合之內하야 令剛柔有體也니 立地之道 曰柔與剛이며 乾知大始오 坤作成物이니라

正月은 乾之九三으로 萬物棣通하야 族出於寅하야 人奉而成之니 仁以養之하고 義以行之하야 令事物로 各得其理라 寅은 木也니 爲仁이오 其聲은 商也니 爲義라 故로 太族爲人統이며 律長八寸이니 象八卦라 宓戲氏之所以順天地하며 通神明하야 類萬物之情也니 立人之道 曰仁與義며 在天成象로 在地成形이며 后가 以하야 裁成天地之道하며 輔相天地之宜하야 以左右民이니 此三律之謂矣니 是爲三統이니라”<sup>14)</sup>

劉溫舒는 所生이 止三者는 亦三元之義라고 하였다. 모든 一切의 物質과 氣運은 반드시 始中終이 있고 이 三位를 지나면 다 枯渴하게 된다. 따라서 納音도 三位에서 그치고 他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上30位와 下30位의 納音을 보면 甲子 乙丑과 甲午 乙未

의 金이 壬申 癸酉와 壬寅 癸卯의 金을 거쳐 庚辰 辛巳, 庚戌 辛亥의 金에서 끝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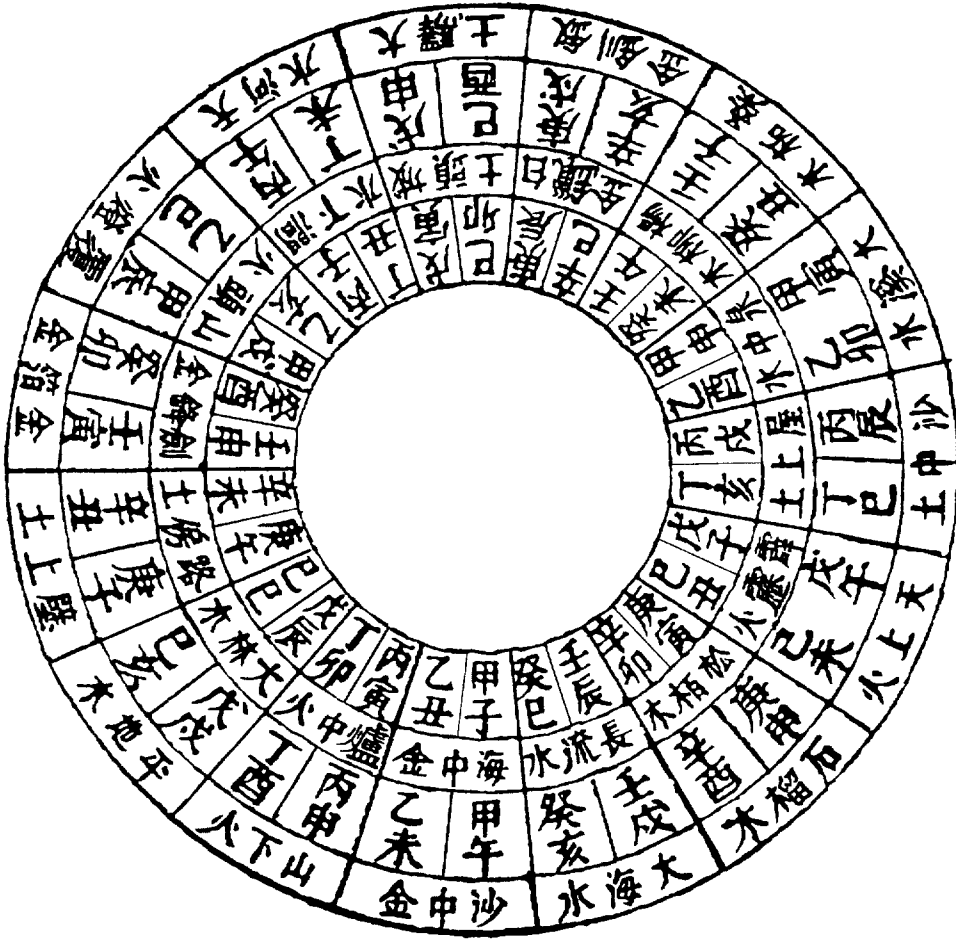
또 丙寅 丁卯와 丙申 丁酉의 火가 甲戌 乙亥와 甲辰 乙巳의 火를 거쳐 戊子 己丑, 戊午 己未의 火에서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이 金→火→木→水→土의 과정을 거쳐 一周를 마치게 된다. 일반적인 五行이 右行하여 順轉하는 것과 달리 納音의 五行이 左行하여 逆轉하는 것은 物體의 소리라는 것이 相逆하고 搏擊함으로써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納音法은 逆轉左行하는 것이다.

여섯째, 納音의 下生 上生이 모두 金에서 시작하는 것은 오직 金만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納音은 소리로서 근본을 삼기 때문에 金으로써 머리를 삼아 甲子의 下生과 甲午의 上生이 시작된다. 그리고 納音에서 火를 金位다음에 둔 것은 火로 金을 鑄造하여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解釋할 수 있다. 輟耕錄에 이르기를 “凡氣는 始於東方而 右行하고 音은 起於西方而 左行하야 陰陽相錯而生 變化하니 所以氣始於東方者는 四時始於木하야 右行傳火하며 火傳於土하며 土傳於金하며 金傳於水요 所謂音始於西方者는 五音이 始于金하야 左旋傳於火하며 火傳於木하며 木傳於水하며 水傳於土니라”라 하였고, 蠡海集에서는 “曰氣生金하고 金出鑛하니 須火以成材하고 火資木以驕焰하고 木資水而生榮이오 五行은 皆賴土以成立이라 故로 火木水土로 爲次序也니라”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萬物之所爲以生者는 必由氣오 氣者는 何오 金也라 金受氣하야 順行則爲五行之體오 逆行則爲五行之用이니 順行이 爲五行之體者는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니 冬至起曆之元은 自冬而春 春而夏 夏而長夏 長夏而歸於秋하야 返本歸原而收斂也라 逆行이 爲五行之用者는 金出鑛而從革于火하야 以成材하고 成材則爲有生之用이라 然이나 火는 非木이면 不生하니 必循木以繼之오 木은 必依水以滋榮하고 水는 必托土以止蓄故로 木而水 水而土하니 是則四行之類가 土以定位

13) 松下見林, 上揭書, p.13.

14)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2, 卷四, p.961.

[그림 2] 納音之圖



故로 大撓作甲子하야 分配五行하야 爲納音焉하나라"하였다.

#### IV. 六十花甲納音

六十甲子の 納音에 修飾語를 붙이고 등급계 꽃모양으로 配列해 놓은 것을 六十花甲이라고 부른다. 松下見林은 이르기를 "子因思之컨대 五行之中에 干支配合한에 干寓其氣하고 支寓其位하야 斯理生焉이라 是故로 甲乙은 爲氣之始오 丙丁은 爲氣之壯이오 戊己는 爲氣之化요 庚申은

爲氣之成이오 壬癸는 爲氣之終이며 子丑은 幽陰이요 寅卯는 生發이오 辰巳는 長養이오 午未는 高明이오 申酉는 死絶이오 戌亥는 休息이니 錯綜配合하야 以成花甲子之名이라 其間에 旁引例取하고 又存乎權이로대 但歸於理하니 不可一途而取也"15)라 하였다. 이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을 松下見林의 運氣論奧疏抄16)와 淵海子平精解17)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5) 上同, p.15.

16) 上同, pp.15-16.

17) 沈載烈, 上揭書, pp.38-44.

甲子乙丑 海中金

甲乙은 金氣之始오 子丑은 北方幽陰之鄉이니 幼稚之金이 沈於水底故로 曰海中金이라 (疏抄以下同)

子는 水에 屬하고 또 湖水가 되고 水旺地가 된다. 金은 子에 死하고 丑에 墓가 되므로 水는 旺하고 金氣는 死葬된 것이다. 따라서 水旺한 海中에 죽은 金이 가라앉아서 葬墓되어 있는 象으로 取한 것이다. (精解以下同)

丙寅丁卯 爐中火

丙丁은 火氣之旺이오 臨於長生母地하야 得其所養故로 曰爐中火라

子에서 一陽이 始生되므로 丑은 二陽에 該當하고 寅은 三陽이 되며 卯는 四陽이 된다. 또 丙丁火는 이미 뿌리가 튼튼한데 寅卯의 木氣가 火를 生해 줌에 天地가 바야흐로 開闢되는 春節이므로 丙丁火가 旺盛하다. 天地가 따뜻해지는 봄철이 陽氣를 도와주므로 萬物이 始生하는 때이니 爐中火가 된다.

戊辰己巳 大林木

戊己는 木氣之化요 居東南長養之方하야 生競茂故로 曰大林木이라

辰은 原野가 되고 巳는 六陽이 되니 木이 六陽에 이르러 枝葉이 茂盛榮昌하게 된다. 따라서 平野의 衆木인데 大林木은 原野에 있는 것이므로 大林木이 된 것이다.

庚午辛未 路傍土

庚辛는 土氣之成이오 氣充離明之地하야 任載驅馳故로 曰路傍土라

未中의 木이 午中의 旺火를 生하니 火가 旺한 則 土가 自然히 受生하게 된다. 그리하여 未土는 스스로 旺하게 되므로 路傍土라고 한 것이다.

壬申癸酉 劍鋒金

壬癸는 金氣之終이니 成質之金이 位於西方旺地하야 遂其肅殺之用故로 曰劍鋒金이라

申酉는 西方金地의 正位이니 庚辛金이 申酉地支를 만나면 帝旺의 位가 되므로 金旺地에서 旺盛하게 生助해 주고 있다. 따라서 納

音으로 얻은 金은 地極히 剛한 것은 칼날 끝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劍鋒金이라고 한 것이다.

甲戌乙亥 山頭火

甲乙은 火氣之始而居戌亥休息之鄉하야 歸於無用하니 猶野火然이라 況戌亥는 久爲乾元尊首之上故로 曰山頭火라

戌亥는 天門이 되는데 火가 天門을 照光하니 그 光明은 至高한 바 있다. 또 戌亥는 날이 저물어서 落日하는 하늘(西쪽 산머리)이 되니 斜陽의 餘光이 빛날 뿐이므로 山頭火라고 한 것이다. 戌亥는 西方의 天門인 때문이다.

丙子丁丑 潤下水

丙丁은 水氣之壯이오 下臨坎宮하야 壯氣가 宜行하야 源源不絕故로 曰潤下水라

子에서 水가 旺하나 丑에서 衰하므로 江河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潤下水라 한 것이다.

戊寅己卯 城頭土

戊己는 土氣之化요 寅卯는 生發하니 山林之傍에 効力故로 曰城頭土라

天干에는 戊己土가 있고 寅은 艮山이니 土가 쌓이면 山이 되므로 城頭土라 하였다.

庚辰辛巳 白鑣金

庚辛은 金之成으로 寄托辰巳生養之地하고 天干이 復連其色하야 西方之行이 純乎得宜故로 曰白鑣金이라

金은 辰에서 養되고 巳에서 生되니 그 形質이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堅利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白鑣金(납과 주석과의 合金)이라 하였다. 納音이 金이 된다.

壬午癸未 楊柳木

壬癸는 木氣之終이오 處於南維火位하야 耗散眞化하야 空虛不實故로 曰楊柳木이라

木은 午에 死하고 未에 墓되므로 木氣는 이미 死葬되었다. 비록 天干에 壬癸水가 生하여주나 柔木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楊柳木이라 하였다.

甲申乙酉 泉中水



甲乙은 水氣之始오 加於長生母鄉하야 來之不窮하며 用之不竭故로 曰井泉水라

金의 健旺은 申에 있으며 帝旺이 酉에 있으므로 金이 生旺되고 있다. 물이 바야흐로 生出되려는 節氣이나 아직 旺盛할 때는 아니므로 泉中水이다.

丙戌丁亥 屋上土

丙丁은 土氣之壯이오 托於母墓하야 休息而不用하고 寓於乾尊之上故로 曰屋上土라

丙丁이 火에 屬하는데 戌亥가 天門이 되어 火氣가 炎上하고 있다. 下位에서 生하는 것이 아니므로 屋上土라고 하였다.

戊子己丑 霹靂火

戊己는 火氣之化이오 伏以坎水幽陰하야 微而著하고 變化不窮故로 曰霹靂火라

丑은 土에 屬하고 子是 水에 屬하니 水가 正位에 있음이요 納音이 火이므로 水中의 火는 龍神(電光을 뜻함)이 아니고서는 없는 것이므로 霹靂火라고 한 것이다.

庚寅辛卯 松栢木

庚辛은 木氣之終이오 居於生發旺鄉하야 挺然獨秀하야 凌霜傲雪故로 曰松栢木이라

木은 寅에서 祿冠되고 卯에서 帝旺되며 木이 이미 生旺하므로 柔弱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堅壽하는 松栢木이 된다.

壬辰癸巳 長流水

壬癸는 水氣之終이오 辰巳는 長養東南하니 水所奔赴가 無有休息故로 曰長流水라

辰은 木庫가 되며 巳는 金의 長生地인 바 金은 生水하는 것이니 水氣는 旺盛하다. 水의 源泉이 마를 念慮가 없으므로 長流水라 한 것이다.

甲午乙未 沙中金

甲乙은 金氣之始오 午未는 南方離明火鄉이니 弱金이 豈能勝旺火리오 故로 曰沙石金이라

午는 火旺地이고 未는 火衰地인데 金은 午位에 敗地를 만나는 한편 未에서 冠帶하게 되어 冠帶와 敗를 同時에 帶同하였으므로 作筏할 수가 없기 때문에 沙中金이라고 하였

다.

丙申丁酉 山下火

丙丁은 火氣之壯이오 臨於西方하야 衰降死絶而炎上之用이 退間故로 曰山下火라

申은 地의 門戶가 되고 酉는 日入의 門이 되니 太陽이 이때에는 日光을 감추게 되는 바 山下火라 하였다.

戊戌己亥 平地木

戊己는 不意之化이오 化가 臨長生休息之間이면 得遂其性故로 曰平地木이라

戊이 原野이고 亥는 木의 長生地인 바 木은 原野에서 生盛되는 것이므로 한 두 나무가 아니다. 森林地帶란 뜻으로 平地木이라고 하였다.

庚子辛丑 壁上土

庚辛은 土氣之成이오 位於子丑水土之交라 泥塗之類는 未能爲生育之用故로 曰壁上土라

丑이 비록 土位이나 子是 水旺地이다. 따라서 土가 물을 많이 만났다는 象이 되므로 泥土이니 壁上의 흙이 되는 것이다.

壬寅癸卯 金箔金

壬癸는 金氣之中이오 氣終則致用하니 致用之金은 位於東方의 金氣死絶之地故로 曰金箔金이라(金氣之中의 中은 終의 誤인 듯하다.)

寅卯는 木旺地인데 木旺하면 金은 弱勢로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또 金은 寅에서 絶하고 卯에서 胞胎하므로 金氣는 이미 薄弱無力한 때문에 얇게 金을 펴서 만든 金箔의 金이 된다.

甲辰乙巳 覆燈火

甲乙은 火氣之始니 氣質微而稚弱하고 位屬長養하야 處乎風木之間하니 雖明而不顯故로 曰覆燈火라

辰은 時間으로 朝飯때이고 巳는 한낮(日中)이 되기 直前이며 辰巳는 또 艷陽(晚春三四月)의 節勢이므로 天下를 下光하는 氣象이니 覆燈火로 取象한 것이다.

丙午丁未 天河水

丙丁은 水氣之壯이오 處乎南離高明之位하니 水行天上故로 曰天河水라

丙丁이 火에 屬하고 午는 火旺地이나 納音으로는 水가 되니 水가 火로부터 生出한 格이므로 銀河가 아니고서는 求할 수가 없다.

戊申己酉 大驛土

戊己는 土氣之化오 氣化而得長生之位하야 力勝厚重이오 又申傳送故로 曰大驛土라

申은 坤이 되고 坤은 다시 땅이 되며 酉는 兌卦이고 兌卦는 澤이 되는데 戊己土가 坤澤의 上에 있으니 浮沈한 土이므로 大驛土라 한 것이다. 前述한 바 戊申己酉의 納音을 求하면 土이다.

庚戌辛亥 釵釧金

庚辛은 金氣之成이오 居於戌亥休息之鄉하야 玩成其質하야 以充其用故로 曰釵釧金이라

金이 戌에서 衰하고 亥에서 病이 되니 金이 이에 衰病하여 柔弱하게 되었으므로 釵釧(비녀와 팔찌)金이다.

壬子癸丑 桑柘木

壬癸는 木氣之終이오 位於北方하야 偃傍母鄉하야 得以滋養而茂榮故로 曰桑柘木이라

子는 水에 屬하고 丑은 金(丑中 辛金이 있다)에 屬하니 水方에서 生木하는데 金이 伐傷하는 格이다. 그러므로 桑柘(산뽕나무)가 生함에 사람들이 伐殺함과 같다.

甲寅乙卯 大溪水

甲乙은 水氣之始오 處乎生發山林之地하야 注瀉無窮故로 曰大溪水라

寅은 東方의 氣運이 旺盛하러는 維方(구둥이)이요 卯는 正東이니 물이 正東으로 흐른다. 따라서 그 성품이 順하고 개울물은 潤澤하게 잘 흐르며 澤沼가 되며 마침내는 다 모여서 흐르니 大溪水가 되는 것이다.

丙辰丁巳 沙中土

丙丁은 土氣之壯이오 辰巳는 木火長養之間이니 充極乾燥하야 不能成稼穡之功故로 曰沙中土라

丙丁火가 辰에 冠帶가 되고 巳에 冠旺이 되니 火旺土弱하므로 沙中土가 된다.

戊午己未 天上火

戊己는 火氣之化오 升於南離旺鄉하야 威勢

赫烈以遂炎上故로 曰天上火라

午는 火旺地이고 未中의 木이 다시 火를 生하여 주니 火性이 炎上하여 마지 않는 故로 天上火이다.

庚申辛酉 石榴木

庚辛은 木氣之成이오 成於死絕之地하니 體雖柔弱이나 成氣有歸則子實繁多故로 曰石榴木이라

申은 七月이 되고 酉는 八月이 되는데 이때의 木은 絶傷하게 된다. 오직 石榴는 이때에 秋果가 成實하므로 石榴木이다. 金多한 則 水를 生하고 水旺하면 木生한다. 따라서 石榴木이 金節에 依據하여 生하므로 成實하는 것이다.

壬戌癸亥 大海水

壬癸는 水氣之終이오 至於戌亥休息之所하야 終聚不散故로 曰大海水라

水는 戌에 冠帶가 되고 亥水에 冠이 되니 水氣는 厚旺한 바가 있다. 또 亥는 江水에 比喻되는데 江水가 大集되면 大海가 되므로 大海水라 하는 것이다.

## V. 結 論

六十甲子の 納音五行과 花甲納音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六十甲子の 納音과 某金某火 등의 內容이 어느시대 누구에 의해 창시되었는지 考證할 수가 없었다.

2. 十二律의 원리에 旋相爲宮, 同類娶妻, 隔八生子, 下生上生 등이 있고, 納音에도 一辰含五音, 同類娶妻, 隔八生子, 下生上生 등의 原理가 있어 十二律이 곧 納音法이라고 主張하는 者가 있지만 納音法이 비록 十二律의 원리를 借用하고 있지만 兩者가 서로 같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納音五行에는 一辰含五音, 同類娶妻,

隔八生子, 下生上生, 三元之理 및 金音爲先의 原理가 內在해 있다.

4. 六十花甲의 原理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는 2가지가 있는데 天干에는 氣를 배합하고 地支에는 位를 배합하여 설명하는 방법과 12 胞胎法과 地藏干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의 研究를 바탕으로 六十花甲의 기원과 응용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1. 沈載烈 增補淵海子平精解 서울 明文堂 1984
2. 岡本爲竹 運氣論奧諺解
3.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2
4. 松下見林 運氣論奧疏抄
5. 禮記 大田 學民文化社
6.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7. 胡廣 等 性理大全 中國 山東友誼書社 1989